

시속 144km 강풍·400mm 폭우 '역대급'

태풍 '솔릭' 광주·전남 넘치나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오는 23일 전남에 상륙하면서 최대 순간풍속 40%(시속 144km) 이상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2년 246명의 인명피해와 전국적으로 5조 1479억원의 재산피해를 내 사상 최악의 태풍으로 손꼽힌 태풍 루사(RUSA)와 이번에 북상중인 태풍 솔릭의 예상 경로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당시 루사는 고층에 상륙한 이후 강원을 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 솔릭이 당초 여수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본에 자리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좀더

246명 인명피해·5조1479억 재산피해 '루사'와 경로 비슷

22~23일 목포 상륙...고수온 해역따라 이동, 세력 커질수도

서쪽으로 이동해 목포로 상륙한 뒤 충남과 경기를 거쳐 강원을 통해 동해로 이동할 것으로 예보했다.

태풍 솔릭이 루사(중심기압 960hpa, 최대풍속 36%)보다 태풍의 강도는 다소 약하지만 2012년 여름 전국적으로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한 카눈, 덴빈, 산바처럼 광주·전남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피해가 예상된다.

솔릭은 특히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고 더욱이 28도 안팎으로 데워진 고수온 해역을 따라 이동하면서 세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22~23일 시간당 50mm 내외,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했다.

기상청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태풍의 오른쪽 반원에 한반도가 위치하게 돼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태풍 솔릭은 20일 오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780km 부근해상에서 시속 140

km의 속도로 서북서진중이며, 현재 중심기압 960hPa로 강도 강중형 태풍의 위력을 보이고 있다.

솔릭은 광주·전남을 정면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23일께에도 최대풍속 시속 104km 이상의 태풍의 위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솔릭은 25일 오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동쪽 410km 인근 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돼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태풍이 서쪽으로 밀리고 있어 태풍의 진로가 변경 될 수 있다"며 "태풍이 북상하기 전인 22일까지는 광주·전남에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6 달뜨기 15:41
해질 19:14 달짐 01:12

강풍 조심하세요

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광주	구름 많음	24/35	보성	구름 많음	21/31
목포	구름 많음	25/34	순천	구름 많음	23/33
여수	구름 많음	24/31	영광	구름 많음	24/34
나주	구름 많음	23/35	진도	구름 많음	24/33
완도	구름 많음	24/32	전주	구름 많음	24/34
구례	구름 많음	21/33	군산	구름 많음	24/32
강진	구름 많음	23/33	남원	구름 많음	21/34
해남	구름 많음	22/33	축산도	구름 많음	25/31
장성	구름 많음	22/3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1.5	남동~남	0.5~1.5
남해 앞바다	남동~남	1.0~2.5	남동~남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0~2.5	북동~동	2.0~3.0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3:59	09:48
15:50	23:13	
11:26	05:13	
여수	--:--	18:46

◇ 주간 날씨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	☁	☁	☁	☁	☁	☁
26/35	26/36	25/33	24/33	25/33	25/34	25/33

◇ 생활지수

- 경고: 식중독
- 매우 높음: 자외선
- 중음: 미세먼지

분대장·독서지도...

군 북부중 경험

내년 대학학점 인정

국방부-전남과학대 등 협약

군 북부 중 분대장이나 지역사회 봉사, 부대원 독서지도 등의 경험을 대학학점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전남과학대 등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북부 중 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대학은 전남과학대, 강원도립대, 건양대, 경기과학기술대, 경인교육대, 구미대, 극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전대, 상지영서대, 인하공업전문대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북부 중 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북부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업무협약 대학과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연내에 학점인정 경험과 학점 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한 후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업무협약 12개 대학에 재학 중 군에 입대한 1만여 명은 내년에 군 북부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더위 식히며 작업하세요"

광주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20일 연제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부채와 쿨링스프레이, 스카프를 나눠주고 있다. 북구는 이달 말까지 건설·농축산업 현장에 폭염예방 용품을 지급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잡은 입시 변경...내년 고교 1~3학년 각기 다른 수능 공부

입시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내년 고등학교에서는 1~3학년 학생들이 각각 출제범위가 다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게 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2022학년도까지 수능 출제범위도 확정됐다.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수능부터 2020학년도 수능까지는 출제범위나 선택과목, 평가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을 개편하려면 출제범위만 조정하고 2022학년도부터 새 대입제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두 해 연속 수능 영역별 출제범위와 평가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

내년 고3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수능의 경우 국어영역은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 등 3개 과목이 출제범위다. 이 공과영역에 진화할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가형은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에서 출제되고, 인문사회계열에 진화할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나형은 수학Ⅱ와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된다.

내년 고2가 되는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학 가형의 출제범위는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다. 주로 고3 학생들이 듣는 심화과목(진로선택과목)이 된 기하는 출제범위에서 빠진다. 수학 나형의 출제범위는 수학Ⅰ, 수학

Ⅱ, 확률과 통계인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 기존 수학 나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됐다. 국어의 경우 출제범위는 같지만, 기존 '독서와 문법' 과목이 '독서', '언어와 매체'로 나뉘면서 이전보다 1과목을 더 수강해야 한다.

내년 고1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를 출제범위하는 공통과목 시험을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필수선택과목으로 치르게 된다. 국어의 경우 독서, 문학은 공통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운데 1개 과목은 필수선택과목으로 치르게 된다.

/김형호 기자 khh@

'손풍기' 전자파 수치 높아...25cm 떨어져야

12개 제품 기준치 초과

시민 김모(여·35)씨는 폭염을 견디기 어려워 손 선풍기를 한 대 구입했다. 하지만 전자제품이어서 얼굴 가까이 손 선풍기를 켜면서 쬐뽀했다. 전자파가 발생해 인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시중에 판매 중인 손 선풍기 13종의 전자파를 측정해 결과 12개 제품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서울 시내 백화점과 할인마트 등에서 손 선풍기를 구매한 뒤 정부 연구용역과 학술연구 등에 사용하는 측정기 'EPRI-EMDEX2'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바람개비가 없는 1개 모델(한국산)만이 거리에 상관없이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았고, 바람개비가 있는 나머지 12개 모델(중국산 9개·한국산 1개·미확인 2개)은 측정기와 밀착시켰을 때 평균 647.7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를 뿜어냈다.

전자파가 발생하는 손 선풍기 12개 모

델 중 1개 제품의 전자파 수치가 50mG였고, 나머지 11개 제품은 낮게는 281mG, 높게는 1020mG의 전자파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정부가 따르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833mG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인데 센터가 전자파를 측정해 손 선풍기 중 4개 제품이 이 기준을 초과했다.

다만, 손 선풍기를 전자파 측정기에서 멀리 떨어뜨릴수록 전자파 수치는 크게 낮아졌다. 전자파 세기는 거리의 제곱, 또는 세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라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25cm 이상 몸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며 "고 '어린이와 임산부는 손 선풍기를 쓰지 않는 게 예방 차원에서 좋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풍수지리사 자격시험 대비반 모집

이 시대 최고의 풍수사 인산 윤갑원 선생님의 실전 비법 강의

모집인원 | 00명
모집기간 | 2018. 8. 14~
모집대상 | 풍수지리에 관심이 있는 분
자격종류 | 통맥풍수지리사(1급, 2급, 3급), 양택풍수사(단일급), 주거환경개선사(단일급)
강의내용 | 음택풍수 강의 : 묘터 보는 비법 (윤갑원 교수)
양택풍수 강의 : 집터 보는 법, 이사집 정하기 등 (정태일 교수)
강의방법 | 이론강의 : 매주 월요일 19:00~21:00 본학회
현장실습 : 매주 토요일 음·양택 현장실습
공개강좌 | 2018. 9. 3 본 학회 강의실
학회위치 | 광주 북구 서방로 37, 2층(충효동 270-15)
연락처 | 062)511-2488, 010-3640-8277(김웅국 학회장)

*본학회는 광주전남 유일의 국가공인 민간자격기본법 제17조2항에 의한 풍수사자격증 발행기관임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 연구학회